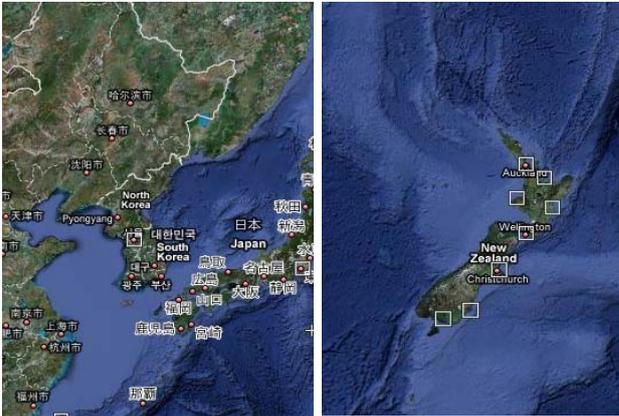


# 한국-뉴질랜드 농업 현황 비교\*

유 찬 희 · 이 명 기

뉴질랜드 농정 개혁의 성공 사례가 농업선진화라는 우리나라 농정 목표의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양국의 농업 여건과 현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해보는 것은 뉴질랜드 식의 농정 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기초 통계자료를 제시·비교하였다.

그림 1 한국과 뉴질랜드 면적 비교



## 1. 국토 및 경지 비교

뉴질랜드의 국토 면적은 2,677만ha로 우리나라의 2.7배에 이른다, 농경지 면적은 규모 차이가 더욱 커 우리나라의 8.2배 수준이고 전체 국토 면적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뉴질랜드(54.9%)가 한국(17.9%)보다 3배 이상 크다. 농경지 면적의 대부분을 곡물 등 경종작물 재배에 활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뉴질랜드 농경지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영농형태는 목초지(74.7%)다.

\* 본 내용은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원, 이명기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chrhew@krei.re.kr, 02-3299-4232, mkleee@krei.re.kr, 02-3299-4166)

표 1 한국과 뉴질랜드의 국토 및 경지 현황 (2007년)

단위: 천ha, ha/호

구분	한국	뉴질랜드
전체 국토 면적	9,972	26,771
농경지 면적	합계	1,782 <sup>1)</sup>
	초지	41 <sup>2)</sup>
	경종·사료재배	1,161
	원예작물	450 <sup>3)</sup>
	기타	244

주: 1) 한국 농경지 면적은 경지이용률이 반영되어 작물별 경지이용 면적 합계가 전체 농경지 면적보다 크게 산출됨. 2) 한국 초지면적은 농식품부의 초지관리면적 기준, 뉴질랜드 초지면적은 풀숲(tussock and danthonia) 포함. 3) 한국의 원예작물 재배면적은 특·약용작물 면적 포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뉴질랜드 농림부, SITUATION AND OUTLOOK FOR NZ AGRICULTURE AND FORESTRY 2008-2012, 2008; 뉴질랜드 통계청.

## 2. 농림업 구조 비교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경지면적이 큰 반면 농업경영체 수는 매우 적다. 2007년 현재 뉴질랜드의 농업경영체 수는 63천호로 한국 농가의 5.1%에 불과하다. 또한 적은 수의 농가가 넓은 경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과 농가 호당 경지면적 차이가 매우 크다. 2007년 뉴질랜드의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233.4ha로 한국(1.5ha)의 155.6배에 이른다.

농림업 부문 취업자 수는 한국(1,670천명)이 뉴질랜드(83천명)에 비해 약 20배나 많다. 전체 인구 및 취업자 수를 고려한 경우에도 전체 취업자 중 농림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뉴질랜드의 약 1.8배에 이른다.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경지면적이 큰 반면 농업경영체 수는 매우 적다. 또한 적은 수의 농가가 넓은 경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과 농가 호당 경지면적 차이가 매우 크다.

표 2 한국과 뉴질랜드의 농업경영체·농림업 취업자(2007년)

단위: 천호, 천명, %

구분	한국	뉴질랜드
농업경영체 수	1,231	63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	1.5	233.4
농림업 취업자 수	1,670	83
전체 취업자 수	23,433	2,126
전체취업자 중 농림업 취업자 비중	7.1	3.9

주: 뉴질랜드 임업 취업자 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맞추어 영림업과 벌목업만 포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뉴질랜드 농림부, SITUATION AND OUTLOOK FOR NZ AGRICULTURE AND FORESTRY 2008-2012, 2008; 뉴질랜드 통계청.

### 3. 농림식품 부가가치 및 농가 경제 비교

뉴질랜드는 전체 경제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편이다. 뉴질랜드의 2005년 농업 부가가치는 2007년 한국 농업 부가가치의 비중보다 2배 이상 높다.

뉴질랜드는 전체 경제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편이다. 뉴질랜드의 2005년 농업 부가가치는 5,359백만 달러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에 이르고 2007년 한국 농업 부가가치의 비중보다 2배 이상 높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농가 호당 평균 부가가치는 한국보다 4배 이상 높다. 그러나 전체 GDP 및 농업, 임업,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는 한국이 뉴질랜드에 비해 모두 크다.

표 3 농림식품 부가가치 및 비중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천 달러

구 분	한 국	뉴질랜드
전체 GDP	953,175	104,955
농업 부가가치(전체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22,584(2.4)	5,359(5.1)
임업 부가가치(전체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1,213(0.1)	711(0.7)
식품제조업 부가가치(전체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8,746(0.9)	5,135(4.9)
농가호당 평균 농업 부가가치	18	82

주: 한국은 2007년, 뉴질랜드는 2005년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뉴질랜드 농림부, SITUATION AND OUTLOOK FOR NZ AGRICULTURE AND FORESTRY 2008-2012, 2008; 뉴질랜드 통계청.

표 4 농업 관련산업 고용 규모 비교

단위: 명

한국	종사자 수	뉴질랜드	종사자 수
도축, 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26,296	육류 가공	25,380
		가금육 가공	2,770
		베이컨, 햄 등 제조	1,760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	10,568	우유 및 크림 가공	1,450
		아이스크림 제조	590
		낙농품 제조	8,060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4,904	과일, 채소 가공	5,380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2,692	유지, 지방 제조	290
곡물 가공품 제조업	8,306	제분제품 제조	200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686	곡물, 제빵류 제조	620
사료제조업	7,807	사료 제조	1,070
기타	-	기타 <sup>1)</sup>	7,790
소계	71,259	소계	55,360
음·식료품 제조업 전체	185,419	농업서비스 및 1차 가공산업 전체	83,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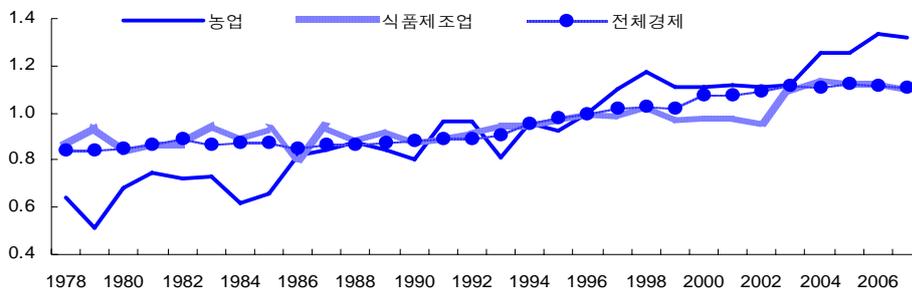
주: 1) 기타는 와인 제조(Wine manufacturing), 양모 세척(Wool scouring), 모직물 제도(Wool textile manufacturing), 제혁(Leather tanning and fur dressing), 가죽 폐기물(Fellmongery) 등 포함.

2) 양국의 표준산업분류코드가 달라 비교가 가능한 산업분류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소계 및 전체로 비교.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뉴질랜드 통계청.

우리나라와 달리 뉴질랜드의 농업 서비스 및 1차 가공산업 부문이 창출하는 고용효과는 농림업 부문보다 크다. 즉, 우리나라는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수가 농림업 취업자 수에 크게 못 미치나, 뉴질랜드의 경우 농림업 취업자 수와 농업 서비스 및 1차 가공산업 종사자수가 비슷하다. 양국 간 비교가 가능한 업종에 국한할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 모두 육류 가공 부문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고 낙농품과 과일·채소 가공의 고용 비중 역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세 업종의 고용 인원이 음·식료품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뉴질랜드(46.6%)가 한국(27.9%)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유형별 경지 비중에서도 볼 수 있듯이 뉴질랜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뉴질랜드 농업, 식품제조업, 전체 산업 생산성 변화



주: 생산성 지수는 Chained Tornqvist Method를 통해 계산

뉴질랜드 농업 생산성은 1984년 농정개혁 후 전체 경제 및 식품제조업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984년 농정개혁 이전과 1978~1984년 기간 동안 농업의 생산성은 감소하였으나, 농정개혁 후 1984~2007년 간 농업의 생산성은 연평균 3.3% 상승하였다. 이는 1984~2007년 전체 산업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 1.0%보다 3 배 이상 높다.

1984년 농정개혁 이후 뉴질랜드의 농업생산성은 전체 경제 및 식품제조업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표 5 뉴질랜드의 산업별 기간별 연평균 생산성 증감률

단위: %

구분	농업	식품제조업	임업	전체 산업
1978~2007	2.5	0.9	1.5	0.9
1978~1984	-0.5	0.6	1.5	0.5
1984~2007	3.3	0.9	1.6	1.0

한국의 경우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이 연도별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정체 상태이며 자본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sup>1)</sup>

표 6 한국 농업부문 요소별 생산성 추이

연도	노동생산성(원/시간)	토지생산성(원/10a)	자본생산성
1995	9,387	954,171	0.61
2000	11,778	1,050,677	0.47
2005	12,297	1,140,668	0.36
2006	13,384	1,160,585	0.36
2007	12,839	1,077,383	0.34

주: 1) 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영농시간, 토지생산성=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 자본생산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  
 2) 우리나라는 Chained Tornqvist Method를 이용한 생산성 지수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음.  
 자료: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주요 통계.

2007년 뉴질랜드 농가의 1인당 소득은 약 23,912천원으로 우리나라 농가 1인당 소득 12,017천원보다 약 2배 가까이 높다<sup>2)3)</sup> 같은 기간 뉴질랜드의 도시 근로자가 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97.7로 한국에 비해 도농소득격차가 다소 낮은 편이다.

1984년 농정개혁 이후 뉴질랜드의 농업생산성은 전체 경제 및 식품제조업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표 7 농가소득 및 도농소득 격차 비교(1인 기준, 2007년)

단위: 천원, %

구분	한국	뉴질랜드(NZ달러) <sup>1)2)</sup>
농가(A)	12,017	23,912 (34,736)
도시근로자 가구(B)	13,087	24,486 (35,568)
(A)/(B)	91.8	97.7

주: 1) 뉴질랜드 통계청에서는 '주요 도시지역' (main urban area), '원격 도시지역' (satellite urban area), '독립 도시지역'(independent urban area), '도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촌지역'(rural area with high urban influence), '도시와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농촌지역' (rural area with moderate urban influence), '도시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농촌지역' (rural area with low urban influence),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농촌지역' (highly rural/remote area)으로 나누어 소득을 산출함. 본고에서는 '주요 도시지역' 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으로, '도시와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농촌지역' 을 농가소득으로 가정. 한편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촌지역'의 1인당 연간소득이 37,128NZ달러로 가장 많고,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농촌지역' 은 31,408NZ달러로 가장 낮음.  
 2) 뉴질랜드 가구 소득은 주간 평균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  
 자료: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주요 통계; 뉴질랜드 통계청.

- 1) 양국의 생산성 지표는 산출 방식이나 정의가 달라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2) 엄격하게 말하면 뉴질랜드의 농가 소득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농가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료 부족으로 해당자료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오차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 3) 뉴질랜드 달러의 2007년 평균 환율인 688.42원을 적용하였다.

뉴질랜드의 2007년 농림업 수출액은 143억 달러이며, 이는 국가 전체 수출액의 64.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양 및 양고기(11.6%), 전유분(10.6%), 소고기(8.4%), 치즈(5.7%), 버터 및 크림(5.2%), 키위(3.5%), 양모(3.2%) 등이 있다. 같은 해 한국의 농림업수출액은 25.3억 달러(수산물 제외)로 전체 수출액의 0.7%에 불과하다. 주요 수출품목은 연초류(16.3%), 과자류(8.9%), 주류(7.6%), 면류(7.1%), 과일(5.7%) 등으로 신선농산물보다 가공농식품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뉴질랜드의 2007년 농림업 수출액은 143억 달러이며, 이는 국가 전체 수출액의 64.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표 8 농림식품 수출 규모 및 비중 비교(2007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한국	뉴질랜드
농림식품 수출액	2,532	14,304
전체 수출액 대비 농림식품 비중	0.7	64.7
주요 수출품	담배, 과자류, 주류, 면류, 과일, 채소, 소스류, 인삼, 김치, 산림부산물, 화훼 등	양고기, 전유분, 소고기, 치즈, 버터, 낙농제품, 목재류, 키위, 양모, 와인 등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뉴질랜드 통계청.

## 4. 주요 품목군 비교

### 축산업·낙농업

축산업은 뉴질랜드 농업 부가가치의 68.5%(2007년)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주요 품목은 양, 젖소, 육우이며 넓은 초지를 이용한 축산업이 발달해 있다. 한국의 축산업은 농업 부가가치 중 13.1%(2007년)를 차지하였다. 주요 품목은 한우, 돼지, 닭 등이며 주로 배합사료를 이용해 축사 내 밀집 사육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 축산업은 농업 부가가치의 68.5%(2007년)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한편 한국의 축산업은 농업 부가가치 중 13.1%(2007년)를 차지하였다.

표 9 주요축종별 사육 규모 비교(2007년)

단위: 천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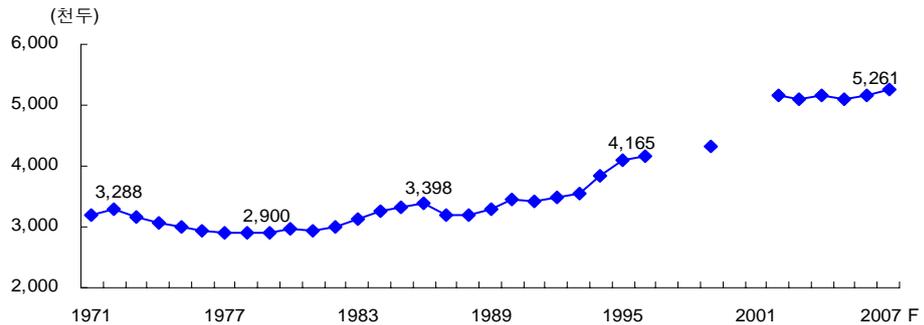
구분	한국	뉴질랜드
양	-	38,460
젖소	453	5,261
육우	2,201	4,394
사슴	98	1,396
돼지	9,606	367
닭	119,365	17,76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 통계; 뉴질랜드 농림부.

뉴질랜드 젓소 사육은 현재 사육규모가 크고 확대되고 있다. 2007/08년에 가뭄 등으로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까지 사육규모와 두당 착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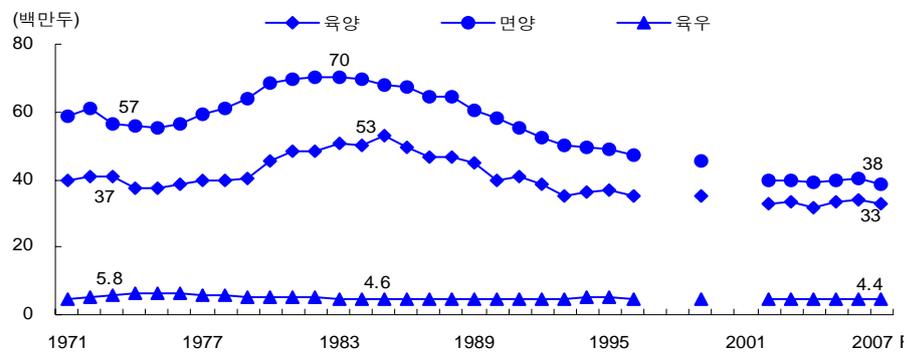
뉴질랜드의 양 사육은 대규모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뭄과 양고기·양모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양 대신 낙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양고기 생산 감소로 가공시설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육우 역시 낙농 부문으로의 전업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뉴질랜드 젓소 사육두수



주: 일부 년도는 자료가 없음.  
자료: 뉴질랜드 농림부, Pastoral Monitoring Report 2008.

그림 4 뉴질랜드 양 및 육우 사육두수



주: 일부 년도는 자료가 없음.  
자료: 뉴질랜드 농림부, Pastoral Monitoring Report 2008.

## 과일류

뉴질랜드의 주요 과일 생산면적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포도와 키위 재배 면적은 크게 앞서는 반면, 사과를 우리나라 규모의 약 1/3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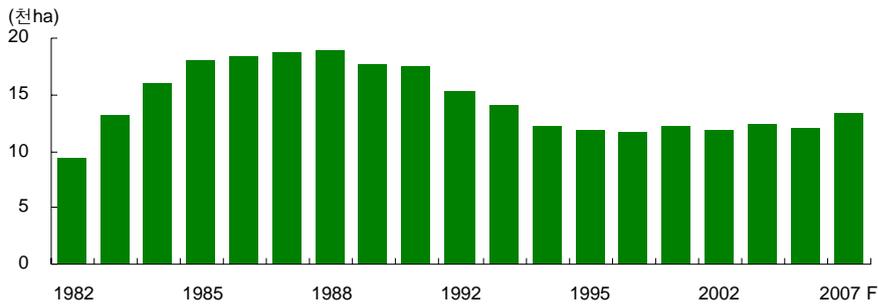
표 10 주요 과일의 생산면적 비교(2007년)

단위: 천ha

구분	한국	뉴질랜드
포도	19	29,6
사과	29	9,2
키위	1	13,3

자료: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주요 통계; 뉴질랜드 농림부.

그림 5 뉴질랜드 키위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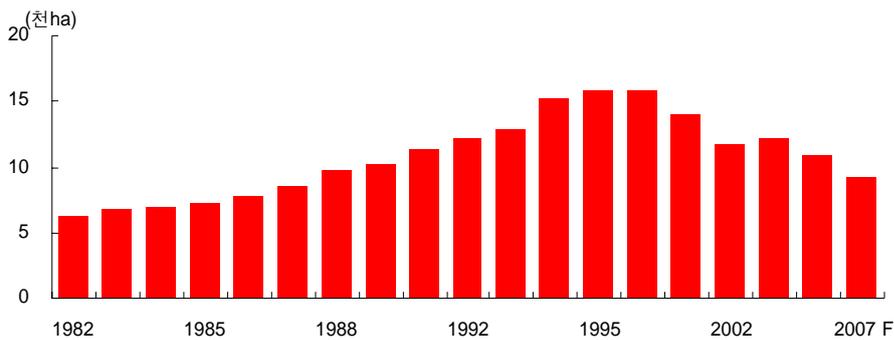


자료: 뉴질랜드 농림부, Horticulture and Arable Monitoring Report 2008.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과일인 키위는 1980년대 말 이후 생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1988년 18.9천ha⇒2007년 14.2천ha). 반면 관리기술의 향상과 양호한 기후조건에 힘입어 2004년부터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EU, 한국, 일본 등이며 최근 뉴질랜드 달러의 고평가로 인해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다. 그린키위는 생산량 및 소과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으며 골드키위는 2007/08년 가격이 상승하였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과일인 키위는 1980년대 말 이후 생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관리기술의 향상과 양호한 기후조건에 힘입어 2004년부터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그림 6 뉴질랜드 사과 재배면적



자료: 뉴질랜드 농림부, Horticulture and Arable Monitoring Report 2008.

사과는 2002년 이후 식재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2007년 면적은 2002년 대비 79% 수준이다. Braeburn, Royal Gala 품종이 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 서리로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 사과의 주요 수출국은 남미,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지난 10년간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수출량은 14~17백만 상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출량이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Apple Futures Project'를 실시하여 잔류농약 극소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 참고자료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2008.

뉴질랜드 농림부, SITUATION AND OUTLOOK FOR NZ AGRICULTURE AND FORESTRY 2008-2012, 2008.

뉴질랜드 농림부, Horticulture and Arable Monitoring Report 2008.

뉴질랜드 농림부, Pastoral Monitoring Report 2008.

뉴질랜드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vt.nz>)

뉴질랜드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stats.govt.nz>)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